

송촌리·松村里

송촌리는 음봉면의 한마을로 작계는 송오촌, 물너목, 청계동, 재너머마을로 나뉘며 김해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인구수는 총 261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84호에 이른다. 본래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서 송오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적리, 청계동을 병합하여 송촌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송촌리 위치도>



⊗ 송오촌, 물너목, 청계동 재너머마을

송촌리는 예전부터 뒷산에 소나무가 많은 농촌이라 송촌리라 하였고, 송촌리를 작계는 송오촌을 비롯해 물너목, 재너머, 청계동의 네 마을로 나누는데 송오촌 마을은 송촌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이다.

물너목 마을은 그 마을 근처의 고개 이름에서 따왔으며, 재너머 마을은 고개너머에 있는 마을이라해서 그렇게 불리고, 청계동은 맑은 시내와 피고리성의 전설로 인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사당시 송촌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이 마을은 위도 36-50-50, 경도 127-02-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음봉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동천리 위에 위치해 있다.

2) 현황

인구분포 현황에서는 남자110명 여자 151명으로 총 262명이며 총 84가구중 79가구인 9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송촌리	261명	110명	151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송촌리	100%	94%	6%

마을 전체 논 면적은 55ha이고, 밭은 16.7ha이다. 농기계 보유는 경운기 85대, 트랙터 2대, 이앙기 85대, 관리기 1대, 콤바인 2대로 농사에 이용되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 앰프 1개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	---	---	---

송촌리	71.7ha	55ha	16.7ha
-----	--------	------	--------

- 영농기계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양수기
송촌리	85	10	18	2	2	85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송촌리	1	1	1조	1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도 20명이며, 성씨별 분포는 김씨가 30가구로 제일 많으며 그밖에는 각 성씨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수는 총 44명으로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4명으로 나타나다.

- 연령별 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송촌리	20	49	18	23	45	54	50	18	2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정씨	박씨	이씨	권씨	기타
송촌리	38%	20%	5%	10%	5%	22%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송촌리	15	13	12	4

- 최고령자

최고령자는 김 형배할아버지 이시며 85세 이시다.

- 마을 호당 평균 소득

년/ 900만원

3) 자연 경관

송촌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면소재지에서 628 도로로 가다보면 물너목이먼저나오고 그다음에 청계동 송오촌 재너머 마을로 피팔성과 물안성 아래쪽에 위치하였으며 도로를 건너 동암 저수지가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송촌리는 아산군 일동면의 지역으로 송오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적리, 청계동을 병합하여 송촌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마을의 형성년대는 1500년쯤으로 추정되며 터를 잡고 산 성씨는 김해 김씨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6) 지 명

·송오촌 : 송촌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물너목 : 송오촌 서쪽 물너목 고개 밑에 있는 한적한 마을.

큰 절이 있었음.

·재너머 : 청계동 동쪽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

·청계동 : 송오촌 남서쪽에 있는 마을.

물안성, 피꼬리성에서 흐르는 맑은 시내가 있음.

·둔덕고개 : 송오촌에서 원남리로 가는 고개.

·물너목 : 송오촌에서 삼거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1957년에 팜.

·송촌저수지 : 송촌리에 있는 저수지. 1957년에 팜.

·혼인바위 : 송오촌에 있는 바위.

옛날 처녀가 벼논에 새를 보다가 소나기를 만나 이 바위굴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총각도 비를 피하러 이 바위로 들어와 서로 합하여 부부 되었다 함.

·피꼬리성 : 물한성 동쪽에 있는 성으로 해발 349m 4개의 봉우리 중 동에서 두 번째 봉우리에 있다. 형식은 퇴피식.

·물안성 : 물너목 마을 뒷산으로 삼태기 형으로 된 석축산성으로 둘레가 600m에 이른다.

7) 전 설

- 폐 꼬 리 성 -

청계도에서 남동쪽으로 1km 산길로 올라가면 조그만 절이 있고 그 뒤 산마루에는 성터가 있다.

이 성터를 피꼬리 성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 성 근처에 남·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머리도 비상했다. 여자는 2백년도 더 묵은 느티나무를 뽑았었고 남자는 큰 바위를 들었기에 이 사람들을 대결시켜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를 걸고 싶어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남자와 여자 집에 찾아가 시합할 것을 원했다. 남자는 이 기회에 여자를 누르고 제일인자가 되고 싶었다. 시합은 시작하여 두 사람은 무엇으로 승리자를 결정할 것인가 궁리한 끝에 성 쌓기를하기로 하고 여자는 피꼬리성을 남자는 물안성을 쌓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날로 해야하는 시합이기에 많이 구경할 수 있어 좋아했다. 힘뿐만 아니라 재능이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두 남녀는 지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않으며 성을 쌓았다. 돌에 짙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더라도 꼭 참았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이겨야 한다는 집념 하나만으로 정신없이 성을 쌓아야 했다. 성을 쌓아 가는 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편이 이긴다고 우겼다. 몇 달이 지난후에 남자쪽이 먼저 성을 쌓고 마을로 내려왔다. 한편 피꼬리성을 쌓던 여자는 남자가 성을 다 쌓고 내려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너무 분하여 치마폭에 싸 안았던 돌을 쏟아버리면서 통곡을 하였다. 치마에서 쏟아진 돌이 산 밑으로 굴러 지금도 피꼬리성 아래에는 돌이 많고 험한 산골 돌산이 되었다고 한다. 끝까지 싸우다가 진 그녀의 장함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돌산에는 절을 지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북한산-

지금의 음봉면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 남매를 낳았는데 낳을때부터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세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하여 두 아이를 다 먹여 살릴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눈물을 머금고 사내 아이를 건너마을 자식이 없는 집에 아무도 몰래 보내주었다. 계집아이는 커 가면서 힘이 남다르게 세어 못하는 일이 없었다. 나무를 해도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무거운 것을 번쩍 번쩍 들기도 하여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즈음 건너마을에도 장사가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마을 사람들은 어느 마을의 장사가 더 힘이 센지 대결을 벌여 보자고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극적인 해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너무나 자기의 모습과 닮았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도 이상한 일이라며 신기해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장사는 가장 어려운 성쌓기 내기를 하였다. 남자는 폭포가 흐르는 서쪽에서 여자는 새들이 많은 동쪽에서 각각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경쟁심을 가지고 성을 쌓았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이 다

쌓여 지는 날 혼인을 할것을 맹세 하였다. 이때 두 사람을 지켜보던 산신령은 절대로 그들은 맺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남매가 혼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성이 거의 쌓였을 때 신령은 여자의 성에는 수 많은 피꼬리뱀을 날려 보내어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 성을 못쌓게 하고 남자의 성에는 물을 내려보내 무너뜨리고 말았다. 두 장사는 너무 놀라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너희는 남매였는데 어찌 혼인의 인연을 맺으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서로가 너무도 닳은 까닭을 알 수 있었고 어리석은 약속을 한 자신들이 후회스러워 몹시 부끄러워 했다. 그리하여 폭포수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먹으니 힘이 다 빠져나가 평인의 모습이 되었고, 각각 다른 배필을 찾아 잘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두 남매가 목욕을 한 폭포수에 찬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으면 피부병과 모든 속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준다 하여 "냉정"이라 불리게 되었다. 또 두 사람이 성을 쌓던 흔적이 있는데 여자가 쌓은 성을 피꼬리성이라 하고 남자의 성을 물한성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효자김씨-

숙종때 아버지와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수원쯤 가고 있을 때 도둑을 만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아들이 대신 잡혀가 죽고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 왔다고함. 숙종때 임현매라는 사람이 상신해서 비를 세웠다고 한다.

-혼인바위-

혼인바위는 송오촌에 있는 바위로서 옛날 음봉면 능오촌의 두메 산골에 적은 땅을 일구고 사는 노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에겐 딸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워낙 인가가 드물고 혼처가 없어서 시집도 못 가고 나이만 더해갔다. 노부부는 궁리 끝에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기로 하고 백일동안 정성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가을이 되어 벼는 누렇게 익었고 새의 극성 또한 대단했는데, 그리하여 새 식구가 교대로 새를 쫓기로 한 것이다.

딸의 차례가 되어 새를 쫓고 있는데 갑자기 쨍쨍 내리쬐던 하늘에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 처녀는 급한 경황에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비를 피하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한 총각도 비를 피하려 이 바위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가! 이 처녀도 물론이거니와 이 총각 역시 서로를 쳐다 보는 순간 마음에 끌려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바위를 혼인바위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이 혼인바위를 철거한 이후로 그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3년 전에 재 복구를 했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정월보름에 청년회 주최로 윷놀이를 하기도하며, 이밖에도 마을 어른신들을 위한 노인잔치등을 열어 어른들을 모시며 마을 주민들 끼리도 작은 계를 만들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마을에는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이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청계사 음봉면 송촌리 145번지 주지 류홍만 종파 : 태고종

11) 공장현황

·아세아산업개발-송촌 316-1, 허가일 96.3.26, 면적 15,297

종업원수 17, 레미콘

·삼익금속-송촌 79, 허가일 95.1.20, 면적 3,593

종업원수 22, 산업용 냉동냉장장비

·세원-송촌 328, 허가일 95.5.10, 면적 4,152

종업원수 18, 금속조립구조재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예전부터 뒷산에 소나무가 많은 곳이라 송촌리라 하였고 김해김씨의 집성촌이며 효자마을로 동네 자랑거리이며 마을의 표상이되고 있다.